

시월

서윤석(68)

모든 정열 다 불태우고
온 천지에 잔치를 벌리는
시월

동이 트면
살며시 일어나
아침이슬 걷어내고
오백 마일을 활활 태우는 시월

마을에는
마을에는
수줍어하는 코스모스가
시려운 물가에서 피고
노란 감알들이 가지에 매달려 웃는
오래 오래 더
같이 살고 싶은
시월

심술 곳은
바람이 불면
사과나무씨를
언덕에 심어놓고
파란 얼굴이 되어
가버리려는
시월